



ASIAN-PACIFIC
CONGRESS on
EVANGELISM
SYDNEY 2027

[보도자료]

보도 즉시 배포 요청

**아시아·태평양 복음화를 향한 역사적 모임,
2027 년 8 월 시드니에서 열린다**

아시아·태평양 복음화 총회, 2027 년 8 월 24~26 일, 호주 시드니에서 개최

언론 문의처: media@billygraham.org

2025 년 10 월 16 일, 시드니

호주에서 아프가니스탄까지, 바누아투에서 베트남까지.

앞으로 2 년 뒤, 아시아·태평양 55 여 개 국가 및 지역에서 2,400 명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아시아·태평양 복음화 총회 참석을 위해 시드니에 모일 예정이다.

3 일간 진행될 이번 아시아·태평양 복음화 총회에서는, 10 개 이상의 언어로 다양한 세대의 목회자, 복음 전도자, 사역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이들은 함께 격려 받고, 도전 받으며, 다시 준비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수십억 명을 향해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새롭게 붙들게 될 것이다.

영국성공회 시드니 대주교이자 BGEA 유럽 복음화 총회 강사였던 캐니시카 라펠(Kanishka Raffen) 목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최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유럽 복음화 총회를 통해 큰 은혜를 받은 한 사람으로서, 2027 년 시드니에서 개최될 아시아·태평양 복음화 총회를 준비 중인

빌리그래함전도협회(BGEA, 이하 BGEA)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베를린은 우리 모두에게 '복음을 담대하고 분명하게 전하자'는 공동의 비전을 심어주었습니다.

이제,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오스트랄라시아 지역의 복음 전도자들이 이곳 남반구에 모여 그리스도를 알리는 단 하나의 사명과 부르심 아래 연합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광스러운 기회를 결코 헛되이 보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BGEA의 대표이자 본 총회의 주최자인 프랭클린 그래함 목사는 이렇게 전했다. “지금은 아시아·태평양 교회에게 결정적인 시점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소망을 이어갈 다음 세대의 마음에 거룩한 불꽃을 심고자 합니다.

정글 깊숙한 섬과 인파로 가득한 도시, 외딴 산골 마을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이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고 함께 동역할 수 있어서 큰 영광입니다.”

베를린 총회와 그 이전의 결실을 토대로

BGEA는 1966년 독일 베를린에서 세계 복음화 총회(World Congress on Evangelism)를 처음 개최한 이후, 1983년, 1986년, 2000년 암스테르담에서 연이어 세계 복음화 총회를 주관해 왔다.

이번 아시아·태평양 복음화 총회는 **2025년 5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유럽 복음화 총회**의 흐름을 이어받는 대회다. 이 총회에는 55개국에서 1,000명 이상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참석해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겠다는 결단을 새롭게 다졌다. 많은 참석자들이 **불타는 마음으로**, “하루라도 빨리 지역 공동체로 돌아가 십자가의 소망을 나누고 싶다”고 **고백했다**.

한 목회자는 기도와 복음 초청의 중요성을 더 많이 강조하겠다는 결단과 함께 이탈리아로 돌아갔다. 그는 곧이어 열린 청년 여름 캠프에서 그 다짐을 실천했고, 무려 40명의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삶을 드리는 놀라운 열매를 맺었다.

“이번 총회의 참석을 통해 복음 초청의 중요성에 더 초점을 맞추게 되었고, 캠프 참가자들이 실제로 복음에 반응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는 기도에 더욱 초점을 맞춰서 젊은이들의 삶이 진실로 복음을 통해 변화되기를 기도했습니다.” – 대니 파스팔레 목사

아시아·태평양에 복음의 불을 지피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는 약 40억 명이 거주하고 있지만 이 중 기독교인의 비율은 10%도 채 되지 않는다.

“전 세계 인구의 대부분이 살고 있지만, 아직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인구가 가장 많은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사명을 감당할 성도들을 모집하고, 훈련하며, 세우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 세계복음주의연맹 글로벌 대사이자 필리핀 갈릴리운동 총책임자,
에프라임 M. 텐데로(Efraim M. Tendero) 감독

“이 도전 앞에 함께 일어납시다.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세우는 그리스도를 닮은 새 시대의 추수할 일꾼들을 일으켜, 아시아-태평양을 그리스도를 위한 땅으로 변화시키는 사역에 동참합시다.”

이번 총회는 초청받은 이들만 참석할 수 있는 행사이며, 그리스도인들은 지금부터 이를 위해 기도로 준비하길 바란다. 총회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추후 제공될 예정이다.

각국 교회 지도자들의 메시지

- **대한민국 | 김장환 목사, 극동방송 이사장, 1973 년 빌리그래함 서울 전도대회 통역**

“한국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복음 전파는 오늘날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합니다. 세속주의가 확산되고, 영혼의 갈급함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담대하게, 그러나 겸손과 사랑으로 선포하라는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젊은 목회자들이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이 모임을 주목하길 바랍니다. 이번 총회가 부흥과 연합, 그리고 지상명령을 향한 열정을 다시 회복시키는 강력한 도화선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 **싱가포르 | 에드먼드 찬 목사, 전략적 제자양성 교회 연합 (Global Alliance of Intentional Disciple-making Churches) 창립자**

“전도 없는 제자훈련은 눈먼 제자훈련이며, 제자훈련 없는 전도는 절름발이 전도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2027 년 호주 시드니에서 열릴 아시아-태평양 복음화 총회를 큰 기대 속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복음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는 구속 받은 공동체로서, 어떤 이는 씨를 뿌리고, 어떤 이는 물을 주며, 어떤 이는 열매를 거둡니다. 이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고린도전서 3:5-9).”

- **말레이시아 | 다니엘 호 박사, 다만사라 우타마 감리교회 창립 담임목사**

“그리스도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것처럼, 이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어야 합니다. 세상이 불확실하고 교회 성장이 정체된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소망임을 세상에 전해야 할 바로 이 때에, 교회는 일어나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 **라오스 | 캄땡 꾀타빠냐 목사, 박사 (라오스 복음교회 총회장)**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인 40 억 명이 넘는 인구가 거주하는 곳으로서, 종교와 신념의 다양성이 가장 큰 곳입니다. 이곳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진리를 전하기 위한 선교의 땅입니다. 아시아-태평양 복음화 총회는 앞으로 다가올 위대한 부흥을 위해 아시아-태평양 전역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일 필요성을 일깨워 주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 **캄보디아 | 행 쉑(Heng Cheng) 목사, 캄보디아 복음주의연맹**

“이번 아시아-태평양 복음화 총회는 캄보디아와 이 지역 전체에 매우 중요한 시점에 열립니다. 말씀과 삶의 실천을 통해 복음을 지역사회에 전하도록 성도들을 격려하고 훈련시키는 귀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복음 전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새 생명의 기쁨이 가정과 일상 속 관계들 안에 드러날 때 시작됩니다. 이번 총회는 복음을 전하는 일과 제자를 세우는 일이 함께 가야 한다는 진리를 다시 일깨워주며,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새로운 열정과 연합된 마음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도록 도전할 것입니다.

- **인도네시아 | 찰스 조난 목사, 그레자 벤엘교회 마켓플레이스 사역부 책임자**

“요한복음 4 장 35 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녀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제 우리가 함께 모여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위대한 영적 추수를 위해 함께 수고해야 할 때입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습니다.”

- **뉴질랜드 | 로버트 시아키모투 박사, 오픈 에어 캠페이너스(Open Air Campaigners), 폴리네시아인 미니스트리 공동 창립자**

“이제야말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전도자와 전도 사역을 재조명할 때입니다. 저는 뉴질랜드에 거주하며 남태평양 전역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이번 복음화 총회가 전도자들과 교회를 격려하고 다시금 일으켜 세워, 우리 지역에서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도록 돕는 계기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또한,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할 수 있도록 훈련되고 준비되기를 기대합니다.”

- **홍콩 | 에릭 총 목사, 홍콩 침례교총연합회 회장**

“하나님께서 지금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놀라운 일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다가오는 복음화 총회는 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응답이라 믿습니다. 이 모임은 단순한 행사를 넘어 믿음의 재충전, 세대 간 연합,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히 전할 새로운 리더들을 세우는 전략적 계기가 될 것입니다. 곧 부흥의 물결이 밀려올 것이며, 이 총회가 그 불씨가 될 것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이사야 43:19)

- **몽골 | 우그탁바야르 토고보르 목사, 브라이트시티교회 담임**

“1990년대 초 몽골이 개방되었을 당시, 나라 전체에 기독교인은 단 네 명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복음이 선포되면서, 삶의 참된 기쁨과 가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몽골 전역에 퍼져 나갔습니다. 지금은 다음 세대 안에 복음을 향한 불이 다시 타오르고 있으며, 저는 이번 복음화 총회가 몽골뿐 아니라 아시아·태평양 전역에 이 열정을 지피는 연료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함께 모여 아시아와 태평양의 발을 향해 주께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입니다.”

- **태국 | 버러멧 짓삭다논 박사, 태국 복음화 위원회 및 개신교 교회협의회 회장**

“현재 태국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온 나라에 전하기 위한 전국 단일 계획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빌리그래함전도협회가 아시아·태평양 복음화 총회를 개최하게 되었다는 소식은 큰 기쁨입니다.

이 총회는 단지 태국뿐 아니라 아시아·태평양 전역에서 복음 전파의 긴박성을 다시금 일깨워 줄 것입니다. 이는 아시아 교회의 연합과 ‘가서 복음을 전하라’ (막 16:15)는 하나의 사명을 함께 드러내는 중요한 연합의 장이 될 것입니다.”

- **베트남 | 호 탄 콰(Ho Tan Khoa) 목사, 베트남 복음주의연맹 회장**

“최근 몇 년간 베트남 전역의 여러 도시에서 자유롭게 전도 집회들이 열리며, 이 과정을 통해 교회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훈련과 준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다가오는 복음화 총회는 베트남 교회에 크나큰 기쁨이 될 것이며, 아시아·태평양 전역의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사명을 다시금 상기시키고, 계속해서 교회를 세우고 준비시키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 **일본 | 요시카즈 목사, 뉴질랜드 그리스도의 교회 일본 오사카교회 담임, 일본선교센터 대표**

“이제는 복음을 가리던 장막이 걷혀야 할 때입니다. 일본에는 1억 2,500만명이 살고 있으며 수많은 우상들이 존재합니다. 수백 년 동안 참되신 하나님과 영생의 길은 일본인들에게 가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능력으로 선포될 때, 가려졌던 장막이 걷히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 저는 이 진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처럼 일본과 아시아·태평양 전역에 쏟아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편집자 참고사항

취재 및 문의 안내

- 보도용 자료 (사진 및 영상 포함): Media.BillyGraham.org/Asian-Pacific-Congress-on-Evangelism.
- 언론인들의 현장 취재를 환영합니다. 아시아·태평양 복음화 총회는 2027년 8월 24~26일, 호주 시드니 국제컨벤션센터 (ICC Sydney, 14 Darling Drive, Sydney NSW 2000)에서 열립니다.
- 등록비 없음: 기자 등록은 무료이며, 총회 기간 동안 식사가 무료로 제공됩니다.
- 언론인 참여 신청 및 관련 문의사항은 media@billygraham.org 으로 연락 바랍니다.

BGEA의 아시아·태평양 복음 사역 역사

빌리그래함전도협회(BGEA)는故 빌리 그래함 목사에게 의해 1950년에 설립되어,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해 오고 있다.

故 빌리 그래함 목사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특별한 애정과 사명을 품고 있었으며, 총 35 회의 전도대회를 통해 1,300 만 명 이상에게 직접 복음을 전했다.

1973 년 서울에서 열린 그의 역사적인 전도대회에는 300 만 명 이상이 참석했으며, 이는 그의 사역 중 가장 큰 규모였다. 또한, 1959 년 호주 시드니에서 열린 전도대회에서는 무려 6 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기도 했다.

그의 아들인 프랭클린 그래함 목사는 지난 33 년간 이 지역에서 41 회 이상의 전도대회를 통해 복음을 전했다. 최근에는 베트남과 라오스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 자리에서 수천 명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했다. 그는 2026 년 캄보디아 씨엠립과 2027 년 베트남 하노이에서 복음을 전할 계획이다.

또한 프랭클린 그래함의 아들이자 복음 전도자인 윌 그래함 목사 역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한 깊은 마음과 부르심을 품고 있다. 그는 지금까지 30 회가 넘는 전도대회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여러 국가 및 지역에서 인도해 왔으며, 2026 년에는 일본과 한국에서 복음을 전할 예정이다.

빌리그래함전도협회(BGEA)에 대하여

빌리 그래함 목사가 1950 년에 설립한 빌리그래함전도협회(Billy Graham Evangelistic Association, BGEA)는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이어오고 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 샬럿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프랭클린 그래함과 윌 그래함 전도자가 인도하는 대규모 전도집회를 비롯해, 빌리 그래함 도서관, 24 시간 운영되는 '빌리 그래함 기도전화', 노스캐롤라이나 애슈빌 인근의 '더 코브(The Cove)' 훈련센터 등 전 세계에서 다양한 사역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출판, 방송, 전화, 라디오,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수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

BGEA 신속 대응 사역팀(Rapid Response Team)의 위기 대응 전문 훈련을 받은 군목(Chaplain)들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여러 재난 현장에 40 회 이상 파견되어, 고통받는 이들에게 정서적·영적 돌봄을 제공해 왔다. 주요 사례로는 2011 년 일본 센다이 대지진, 2014 년 필리핀 세부 태풍, 2022 년 서울 이태원 참사 등이 있다.

또한 BGEA 의 온라인 복음 전도 사역인 [SearchForJesus.net](https://www.searchforjesus.net) 은 지금까지 전 세계 1 억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으며, 매년 수십만 명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사람들과도 지속적으로 연결되고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BillyGraham.org](https://www.billygraham.org) 를 방문해 주시기 바란다.